

李대통령, 15~17일 G7서 정상외교 무대 첫발

트럼프·이시바 등 대면 주목 임기 초부터 실용 외교 속도 한미·한일 정상회담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17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통해 정상외교 데뷔전을 치른다.

지난 4일 취임하며 '국익 중심 실용 외교' 노선을 천명한 이 대통령은 취임 2주도 되지 않아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 정상들과 대면하는 다자 정상외교 무대에 첫발을 내딛게 되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리는 G7 회의에 초청받아 참석

하기로 했다고 지난 7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사흘째였던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정상외교에 본격 시동을 건 데 이어, 다자 정상외교에도 나서기로 하면서 임기 초반부터 외교 행보에 바짝 속력을 내는 모습이 드러났다.

이 대통령으로선 G7 회의가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서방의 주요 정상을 한자리에서 두루 만나고 이들과 양자·다자 회담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G7 회의에선 첫 한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이 전날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미국 초청을 받았지만, 가장 빨리 대면

할 기회는 G7 회의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 앉게 된다면 한미 관계 협상 문제 등 양국 현안에 대해 큰 틀의 의견 교환이 이뤄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G7 회의가 캐나다에서 열리는 만큼, G7 회의 일정을 마친 뒤 인접국인 미국으로 향해 트럼프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G7 회의에 참석하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양자 회담 여부도 관심이 있다.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우호 협력을 다지면서 아권의 '친중 정부' 공세와 '대일관계 악화' 우려를 해소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이 대통령이 당선 전 전임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노선에 대해 '지나치게 복종하는 태도'라며 비판적 견해를 드러냈던 만큼 첫 회담을 갖게 된다면 한일 관계 설정의 발판을 어떻게 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G7에 한미일 정상이 모두 참석하는 만큼 한미일 회의의 가능성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선서식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미국 정치권 일각의 이재명 정부가 대일 외교에 강경할 것이라는 관측 및 긴밀한 한미일 협력이 가능할 지 등에 대한 의구심 등을 불식

할 수 있다는 전망도 여론에서 나온다.

또한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G7 회원국(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일본·캐나다) 및 회의 참석국 정상들과 잇따라 만나는 과정에서 대미 통상협상 관련 탐색전을 펼 가능성도 있다.

대부분의 참석국이 미국과 통상협상을 벌이고 있는 만큼, 타국 정상들과 각국의 통상 협상 상황 및 대응책 등을 공유할 기회가 될 수 있어서다.

이 대통령은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의 참석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영산강 설계 공모 특혜 의혹' 광주시청 압수수색

강 시장 "수사권 남용" 공개 항의

광주광역시 추진 중인 '영산강 익사 이팅존 조성 사업'의 국제설계공모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이 최근 광주시청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나섰다.

이에 강기정 광주시장은 경찰 수사가 "적극행정을 가로막는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광주경찰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시청 신활력추진본부 등 실무 부서에 수사관을 보내 설계 공모와 관련된 컴퓨터, 기술 평가 보고서, 주차장 면적 변경 서류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과실·고의로 인한 범죄 사실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영산강 익사이팅존 조성 사업은 'Y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416억원을 들여 북구 동림동 산동고 일원에 아시아 물놀이 테마체험관, 인공서핑장, 자연형 물놀이장 등 사계절 복합체험공간을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광주시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창의적 작품을 선정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단계 11개 작품을 뽑고, 2단계에 오른 5개 작품을 심사해 올해 2월 당선작을 선정했다.

하지만 일부 탈락업체가 공모 지침 위반과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 설계공모 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달 26일 "절차상 중대한 하자나 무효로 볼만한 사유가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현재 원고 측은 항고심을 진행 중이다. 광주시는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이 나왔음에도 경찰이 무리한 수색을 진행 중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광주시는 입장문을 통해 "법원은 이미 해당 사건에 대해 원고 측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상황이고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고심이 진행 중"이라며 "경찰의 무리한 압수수색으로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모든 부서에 발언이 송출되는 '6월 직원 정례회'에서 박성주 광주경찰청장에게 직접 항의 전화를 한 사실을 밝히며 수사에 대한 거센 반감을 드러냈다.

강 시장은 "법원의 판단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처럼 압수수색을 벌이는 것은 명백한 수사권 남용"이라며 "수사를 이유로 적극 행정을 가로막는 현상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정상이 기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지난 5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 안전치안 점검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금호타이어 새 공장·광주공항 국제선 건의"

강 시장, '안전치안점검회의' 참석 이재명 대통령에 지역현안 건의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금호타이어 새공장 건설과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취항 등 지역 현안을 건의했다.

강 시장은 이날 오후 화상회의로 열린 대통령 주재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지난달 현장을 찾았던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와 관련 조기수습을 위해 여러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공장을 새로 짓는 문제가 크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산업은행에서도 관심 가질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다.

강 시장은 또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취항을 건의했다. 강 시장은 "제주항공 참사 이후 무안공항 재개항이 늦어지고 있고 지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광주공항 임시취항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지난 4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조치를 통해 '24시간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공항'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서남권 관문공항 로드맵'과 '광주공항의 국제선 임시운항'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강 시장은 이 밖에도 광주시가 추진 중인 교통사고·산업재해·자살 '3대 사망사고 줄이기 운동'과 관련해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사망자는 줄었으나 자살 사망자는 쉽사리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재난안전분야 글자수 상한 확대 등도 요청했다.

정상이 기자

DK 디케이 주식회사

봄, 공기의 새로운 정의
공간을 빛내는 선택

봄철 미세먼지와 꽃가루도
이제 걱정 없이,
깨끗한 공기를 집 안으로.

모든 순간을 더 건강하게
디케이 공기청정기·살균기

www.e-dk.co.kr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